

News

'대출허브' 네이버, 전 은행권 고속도로 뚫렸다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한해 '일사전속' 규제를 푸는 방안을 발표...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정 편의성과 접근성을 무기로 대출모집인으로서 금융사들과 제휴를 맺고 판매를 시작하면 '네이버 연합'에 합류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

전세 사라진다…시중은행 '월세대출' 만지작

한국경제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세가 줄고 월세가 급증하자 은행권 월세 자금대출의 상품 확대 가능성...현재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청년층에 지원하는 정책대출이 유일 관계자, "전세 소멸론이 확대되면서 내부적으로 월세 대출의 타당성을 검토 중...당장 상품을 출시하려는게 아니라 일단 수요와 수익성을 확인하는 수준"

뉴욕증시 꽃길 속 그늘…WSJ "월가 최대 실수는 은행주 투자"

매일경제

나스닥 올해 33%↑ 최고기록 낼 때 나스닥 은행업종지수는 22% 급락...헤지펀드들 두 자릿수 손실을 '피눈물'...은행은 실수없어 좋다'던 버핏도 외면... 관광·숙박·요식업 등 유통업체들 줄도산 분위기 속에 부채 상환 어려움 부각..."연체 수치를 보고 은행 재무 표표상 자본과 수익성을 판단하고 투자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불가능"

라임펀드 전액 반환 수용여부 D-7, 진퇴양난에 빠진 판매사

이투데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 답변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오는 26일과 27일 이사회를 열고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금감원은 재연장은 없다는 강건한 입장 신한금융투자, 미애에셋대우 등 증권사들도 비슷한 시기 이사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논의할 예정...상품을 개발한 운용사 대신 판매사가 전액 보상을 한 전례는 한차례도 없어

VC 품은 신한금융…두산 '네오플렉스' 730억에 인수

머니투데이

신한금융은 네오플렉스 보통주 2,441만 3230주(지분율 96.77%)를 730억원(잠정)에 인수...양사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네오플렉스 지분 매매 안건을 의결 신한금융은 이번 인수로 독립·전문 VC를 보유... "이번 인수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라이나 이어 악사도…외국계 보험사 잇딴 매각설 왜?

뉴스웨이

저금리, 저성장의 높에 빠진 국내 보험시장에서 철수하려는 외국계 보험사들의 '엑소더스' 움직임이 확산...푸르덴셜생명 2조원대 매각 흥행도 영향...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악사그룹은 악사손보 지분 100%를 매각하기 위해 삼정 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유력 인수 후보로는 신한·우리금융 거론

국내주식 소수단위 매매 허용 추진…금융위, 27건 규제 개선 나선다

뉴스1

금융위,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 총 62건 중 8건의 규제에 대한 정비가 완료됐고 5건에 대해선 현재 정비가 진행 중...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하게 규제 정비 방안이 마련...여행·레저 관련 은·오프 간편보험 서비스를 출시 등

아시아나 결론 내자…이동걸, 정몽규에 최종담판 제안

한국경제

산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동걸 산은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 간의 면담을 제안...이번 면담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 "현재 협의 중인 HDC현산 측과 금호산업(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 간 대면 협상이 원만히 이뤄져 아시아나항공 M&A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희망한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일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